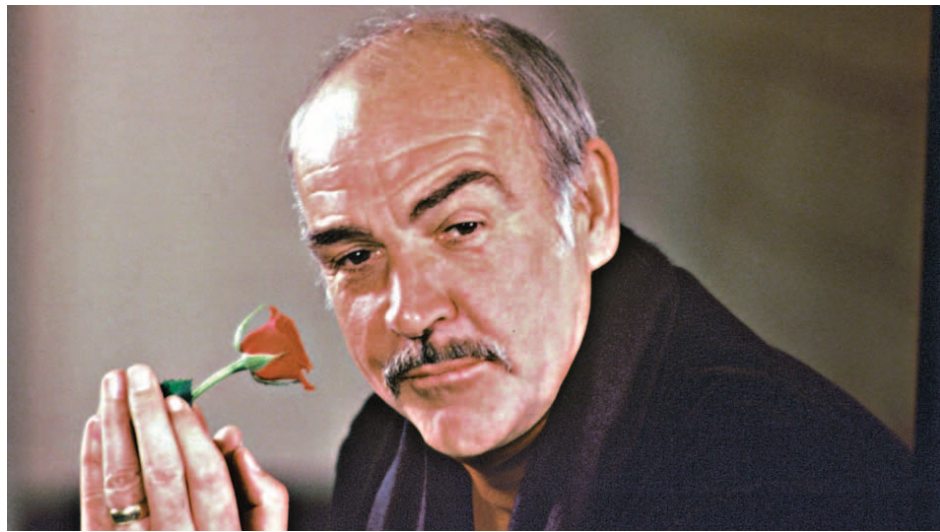


원조 제임스 본드, 영원한 별이 되다

향년 90세... '007 시리즈' 7번 연기 브로스런 "위대한 본드로 기억될 것"



'영원한 007, 제임스 본드' 손 코너리가 향년 90세를 일기로 10월31일 밤(이하 한국시간) 세상을 이별했다. 1일 AP통신은 고인이 1987년 1월 영국 런던에서 영화 '장미의 이름'을 소개하며 한 손이 장미를 든 모습으로 추모했다. AP·뉴스

"본드, 제임스 본드!"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존재감은 더욱 강렬했다. 대적할 자 없는 첩보원의 면모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코드명 '007', 영원불멸할 것 같은 첩보원 제임스 본드. 하지만 이를 연기하며 '전설'로 남은 배우는 이제 별이 되었다. 영화 '007' 시리즈의 첫 번째이자 대표적인 제임스 본드로 남은 배우 손 코너리가 10월31일 밤(한국시간) 90년에 걸친 삶을 마감했다. 그의 임무를 이어받은 피어스 브로스런, 다니엘 크레이그 등 배우들은 물론 전 세계 유명인사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이별사로 추추하고 있다.

●중후하면서 섹시한 그래서 아름다운
1930년 8월25일 스코틀랜드 태생인 고인은 1962년 '007' 시리즈의 첫 작품 '살인번호'로 스타덤에 오르기까지 역경의 세월을 보냈다.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

어나 13세에 우유를 배달했다. 트럭 운전과 벽돌공으로도 생계를 이은 그는 보디빌더 활동을 계기로 1954년 '라일락 인 더 스프링' 이후 단역배우로 나섰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러브콜을 받을만큼 축구에도 재능이 있었지만 연기를 택했다. 당대 톱스타들이 포기한 '007 살인번호'의 제임스 본드 역을 연기하면서 고인은 일약 세계적인 배우의 반열에 올랐다. 현란한 액션에 세련된 면모, 달콤한 로맨스의 분위기를 과시한 고인은 '위기탈출' '골드핑거' 등 모두 7편으로 '007' 시리즈를 첩보영화의 고전으로 남겨놓았다. 제임스 본드도 그를 통해 대표적 첩보원 캐릭터로 각인됐다.

하지만 그는 이에 머물지 않았다. 1974년 '오리엔트 특급살인', 1986년 '장미의 이름', 이듬해 '언터처블', 1990년 '붉은 10월' 등에 출연하며 '007'의 이미지를 벗었다. '언터처블'로 1988년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거머쥔 그는 2006년 은퇴를 선언하기 3년 전 '젠틀맨리그'를 마지막 작품으로 남겼다. 중후하면서도 '가장 섹시한'(미 피플지) 매력으로 연륜과 경험을 더욱 품위 있게 빛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대와 스타일을 정의한 위대한 제임스 본드"
손 코너리는 이처럼 세상에 기억되며 많은 이들의 추억을 되살려내고 있다. 고인에 이어 '카지노 로얄', '스카이폴', '노타임 투 다이' 등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를 연기한 다니엘 크레이그는 1일 "시대와 스타일을 정의한, 진정한 큰 별이 졌다"며 추도했다. '어나더데이' 등에서 활약한 피어스 브로스런은 "위대한 제임스 본드였다"고 추모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김현식-유재하 추모 앨범·콘서트 봇물

가수 김현식과 유재하 추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990년 11월1일 세상을 떠난 김현식의 30주기를 맞아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참여하는 리메이크 앨범 '추억 만들기'가 올해 안에 나온다. 가수 김장훈도 고인이 마지막 녹음한 스튜디오에서 권인하와 함께 추모 랜선 콘서트를 기획 중이다. 엠넷은 김현식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 음성복원 기술로 재현한 '다시 한번'을 12월9일 선보인다. 1987년 25세로 11월1일 숨진 유재하를 기리는 '유재하음악경연대회'도 19일 온라인 무대를 연다.

지속·비와이·장성원 등 웨딩마치

그들 레인보우 출신 지속(30)을 비롯해 래퍼 비와이(27), 연기자 장성원(44), 개그맨 정운호(34)가 결혼했다. 이들은 10월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가족과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 예식을 올렸다. 지속은 프로그래머 이두희(37)와 웨딩마치를 올렸다. 이날 그룹 레인보우 멤버들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래퍼 비와이는 8년, 가수 겸 연기자 장나라의 오빠인 장성원은 2년의 교제 끝에 연인과 결혼에 골인했다. 개그맨 정운호도 4살 연하의 항공사 승무원과 결혼했다.

'어게인 나훈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가황' 나훈아의 언택트 공연 실황인 KBS 2TV '2020 한가위 대기획-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9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1일 방통심의위는 "10월30일 심사회의를 거쳐 총 6편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선정한 이유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나훈아의 공연 실황을 중계해 시청자의 높은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YTN 3부작 프로그램 '탐사보고서 기록-5공화국의 강제수용소'가 차지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배성우 코믹연기, 안방극장도 사로잡다

SBS '날아라 개천용' 생계형 기자 호평

연기자 배성우가 코믹 연기로 스크린에 이어 안방극장까지 휘어잡을 조짐이다. 10월 30일 첫 방송한 주연 드라마 SBS '날아라 개천용'이 무대다. 다양한 영화로 선보인 코믹한 매력을 드라마에서 새삼 뽐내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배성우는 '날아라 개천용'에서 지방대 출신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등장한다. 드라마는 '생계형 기자'인 그가 고졸의 국선번호사 권상우와 만나 역설한 누명을 쓴 사법피해자들을 돕는 이야기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 '지연된 정의'를 토대로 했다. 드라마는 첫 방송부터 경쾌한 분위기로 시청자의 시선을 단번에 붙잡았다. 배성우의 코믹 연기가 제작진이 초반에 띄운 '승부수'로 꼽힐 정도로 압권이란 반응이 줄을 잇는다. 권상우에게 같은 지방대 출신임을 밝히면서 "선배님, 인사 제대로 박겠습시다"며 인사하는 술주정 장면이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센 척하다가도 때로는 지



배성우

질한 면모를 숨기지 못하는 캐릭터가 정점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와 '기대 이상'이란 반응이 쏟아진다. 스크린을 주 무대로 활약해온 배성우가 코믹함을 전면에 내세운 캐릭터를 안방극장에서 펼치는 처음이다. 전매특허로 꼽히는 코믹 연기는 상대역 권상우와 호흡으로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권상우는 영화 '탐정', KBS 2TV '추리의 여왕'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콤피 연기에 강점을 과시해왔다. 그는 "배성우가 모든 에드리브를 전부 살려준다"며 만족해했다. 이에 힘입어 드라마 시청률은 단순예 6%(닐스코리아)를 넘어섰다. 1회 5.2%에서 10월31일 2회 6.7%까지 올라갔다. 배성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 의미와 재미를 모두 다 찾을 수 있는 드라마"라면서 '날아라 개천용'의 흥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코로나 극장가, 자구책 마련 눈에 띄네

롯데시네마, 프로야구 PS 생중계 박찬욱 감독전·연말정산 기획전도

감염병 확산 여파로 영화 관객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각 극장이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무대로 돌고구를 찾아 나섰다. 롯데시네마는 2일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막을 여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의 모든 경기를 서울 잠실 월드컵야구관 등 전국 10여 개관에서 생중계한다. 극장은 대형 스크린과 첨단 사운드 시스템 등을 통해 경기를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비춘다.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은 6일부터 24일까지 '박찬욱 감독전'을 개최한다. '공동경비구역 JSA' 개봉 2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전으로, 연출자 박찬욱 감독의 작품 일곱편을 상영한다. '공동경비구역JSA', '복수 3연작'인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와 '박쥐' 등으로 관객을

만난다. 서울 종로3가 서울극장은 11일부터 12월1일까지 '연말정산 기획전-해피 엔딩 이즈 마인(Happy ending is mine)'을 연다. '해피 엔딩은 나의 것'이라는 뜻으로, 따스한 연말을 맞자는 의미다. '피아니스트의 전설'로 시작하는 이번 기획전은 켄 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를 비롯해 '패왕별희 디 오리진' '잠수종과 나비' 등 명작을 소개한다. 여자야구 선수의 성장기를 그린 '야구소년', '남매의 여름밤' 등 올해 한국 독립영화 화제작도 새롭게 선보인다. 앞서 각 극장들은 다양한 기획전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 무대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 때문이다. 올해 9월 기준 극장 관객은 498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70.8%나 급감했다. 각 극장은 이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무대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암 보험, 걱정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침순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생명보험 협회 심의필 제 2020-02556호 (2020.09.01) <COM-2020-08-32243>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	---------	------------	-------------------------------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080-608-1010

스텐기미술 1개 상담 완료 시 무료증정!

[이벤트기간: 2020.08.01 ~ 2020.12.31]
 * 필수 후 7일 이내 최소 20만 이상 상담 시 (생애 최초)
 * 배상금 상한선으로 후약 600소요 (연 비 한함)
 * 암사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 본 상품은 소액자가 기본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초기 상담 시 다른 상품으로 대해 발송됨

* 가입 후 1일부터 보장(단,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 최초 1회보장(가입 2년 이내 전담 시 50% 보장)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저축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억 원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가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알반케어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가입이 가능함
 * 당사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로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고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